

金炳和

서예 · 문인화 도록

전 26점 · 2021-2026

작가 소개

경남 합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서예가·문인화가. 서예와 사군자, 문인화를 두루 다루며, 남명 조식 선생의 시와 어록을 즐겨 쓴다. 합천문인화회, 연목회, 단봉서우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미술협회 합천지부 회원이다. 황강신문 발행인 및 편집인을 지냈다.

萬里江山筆下華空林空
 寒鳥世新桃花依舊年
 雲不行兮草雨重

李忠武公詩
 金炳和

도 01

이충무공시 李忠武公詩

서예 · 2026

제26회 합천미협전 (2026)

화 제 書題

雲	桃	空	萬
不	花	林	里
行	依	寂	江
兮	舊	寂	山
草	年	鳥	筆
雨	年	無	下
重	在	影	華

만리강산필화화 공림적적조무영

도화의구년년재 운불행해초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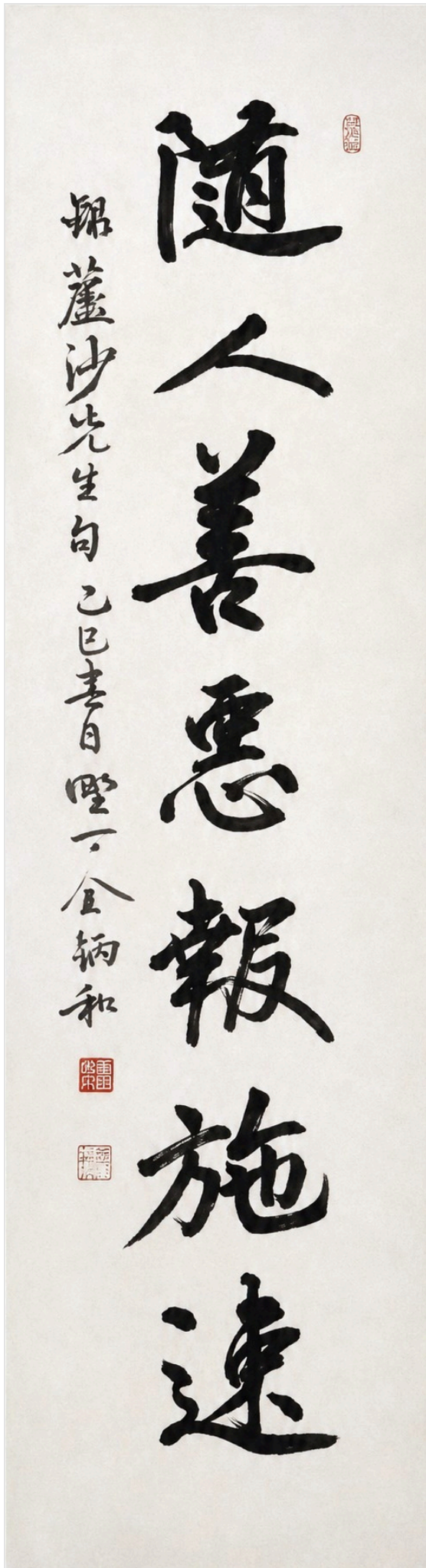
만 리 강산이 붓 아래 화려하더니, 텅 빈

숲은 적막하고 새 그림자 하나 없네.

복사꽃은 해마다 옛 모습 그대로 피건만,

구름은 걷히지 않고 풀 위엔 비만 무겁구나.

충무공 이순신의 한시를 행초서로 쓰다.



도 02

수인선악 隨人善惡

서예 · 한지에 먹 · 70 × 35cm · 2025

2025 경남미술협회 회원전 아트엑스포
(창원 3·15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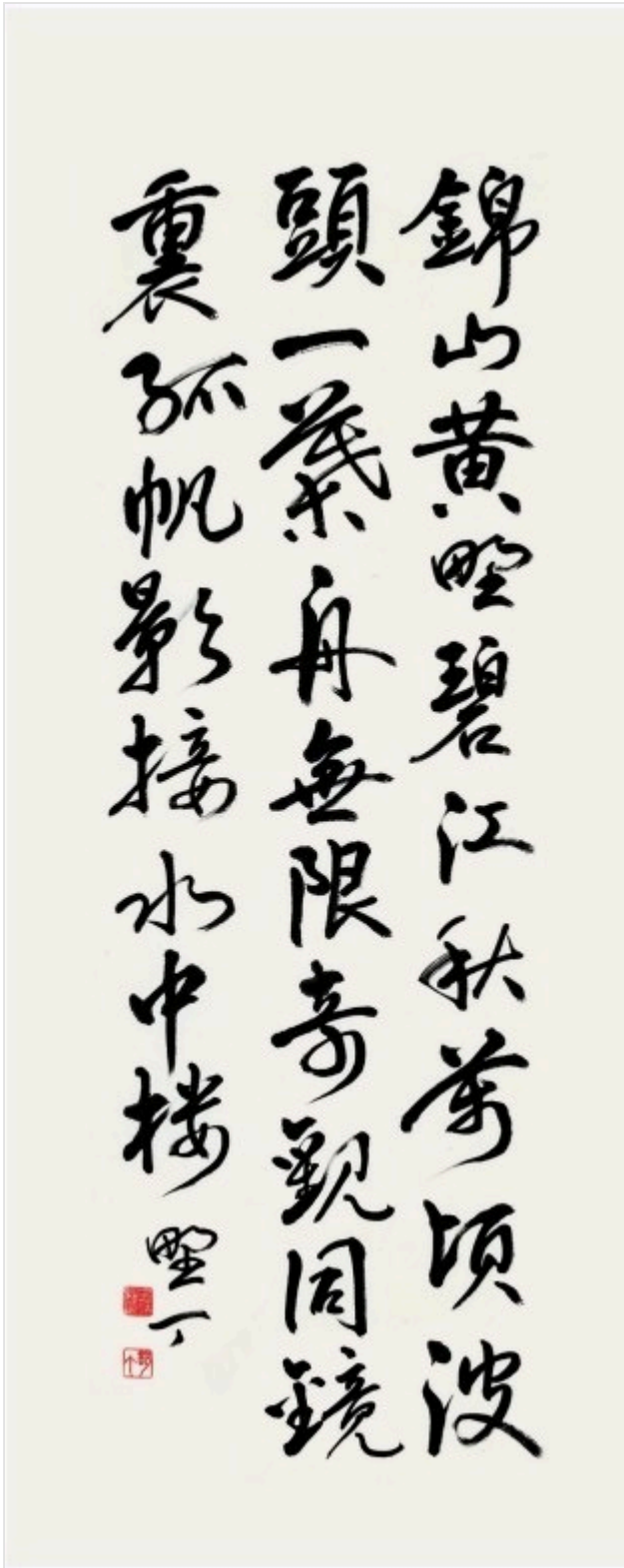
화 제 書 題

報	隨
施	人
速	善
	惡

수인선악 보시속

선과 악은 사람을 따르니, 그 값은 빠르게
베풀어진다.

로사(蘆沙) 선생의 구를 을사년 봄에 쓰다.



도 03

임진선상음 臨津船上吟

서예 · 2025

2025 文字文明展 「立象盡意」
공모초대작가전 (창원 성산아트홀)

화 제 書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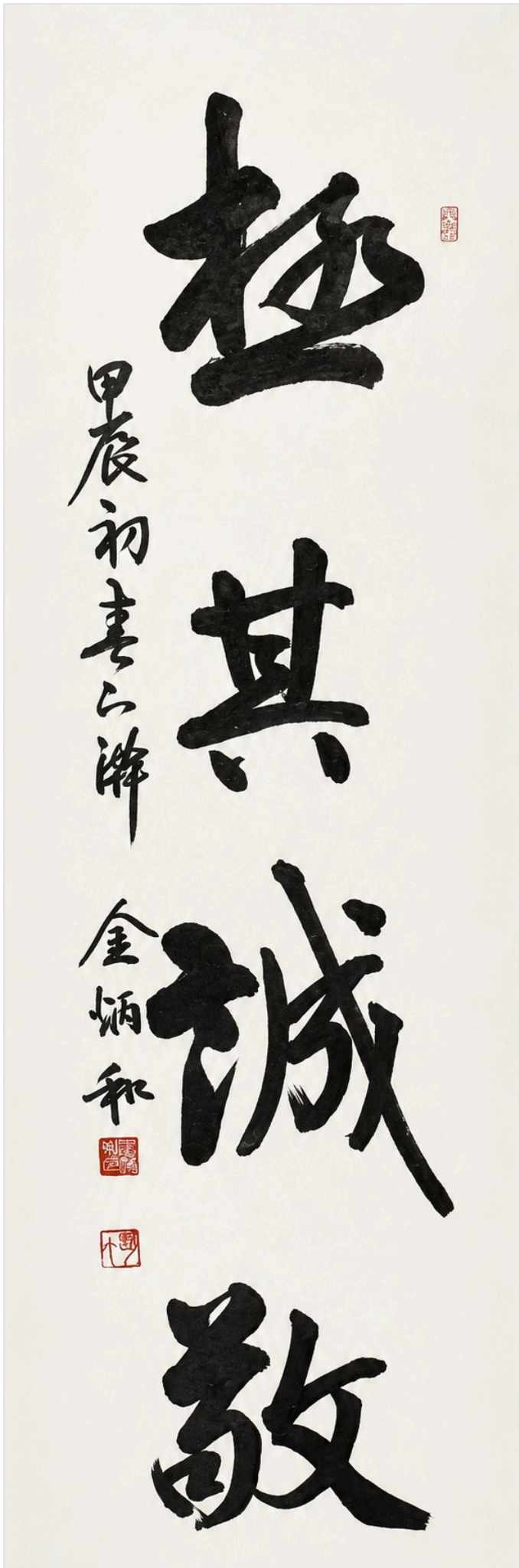
孤	無	萬	錦
帆	限	頃	山
影	奇	波	黃
接	觀	頭	野
水	同	一	碧
中	鏡	葉	江
樓	裏	舟	秋

금산황야벽강추 만경파두일엽주

무한기관동경리 고범영접수중루

산도 들도 누런데 강만 푸르네. 만경창파에
한 조각 배 띄우니, 무한한 경관이 거울을
보는 듯한데, 외로운 배 그림자 물속에
누각을 짓네.

함허당 득통대사(涵虛堂 得通大師,
1376~1433)가 가을에 임진강을 나룻배로
건너며 읊은 「임진선상음」을 행초서로
쓰다.



도 04

극기성경 克其誠敬

서예 · 2024

제13회 찾아가는 미술관 (2024)

화 제 書 題

克
其
誠
敬

극기성경

그 정성과 공경을 지극히 다하다

갑진년 초봄에 쓴 대자 행서.

朱默小梅在高教牙瀆
市堯窓明星斗近江
潤水雲遙

報南冥先生詩
金炳和
笑外書

도 05

우음 偶吟

서예 · 2023

남명조식선생 어록서예전 (2023)

화 제 書題

江	窓	高	朱
闊	明	聲	點
水	星	讀	小
雲	斗	帝	梅
遙	近	堯	下

주점소매하 고성독제요

창명성두근 강활수운요

붉은 꽃 핀 매화나무 아래서

큰소리로 요전을 읽는다.

북두성이 가까워 창이 밝고,

강물 넓은데 아련히 구름 떠 있네.

(요전: 서전의 편명)

남명 조식 선생의 시 「우음」.

계묘년에 쓰다.

도 06

쌍계석문 雙磎石門

서예 · 2023

제31회 연목회 회원전 (2025)

화 계 書 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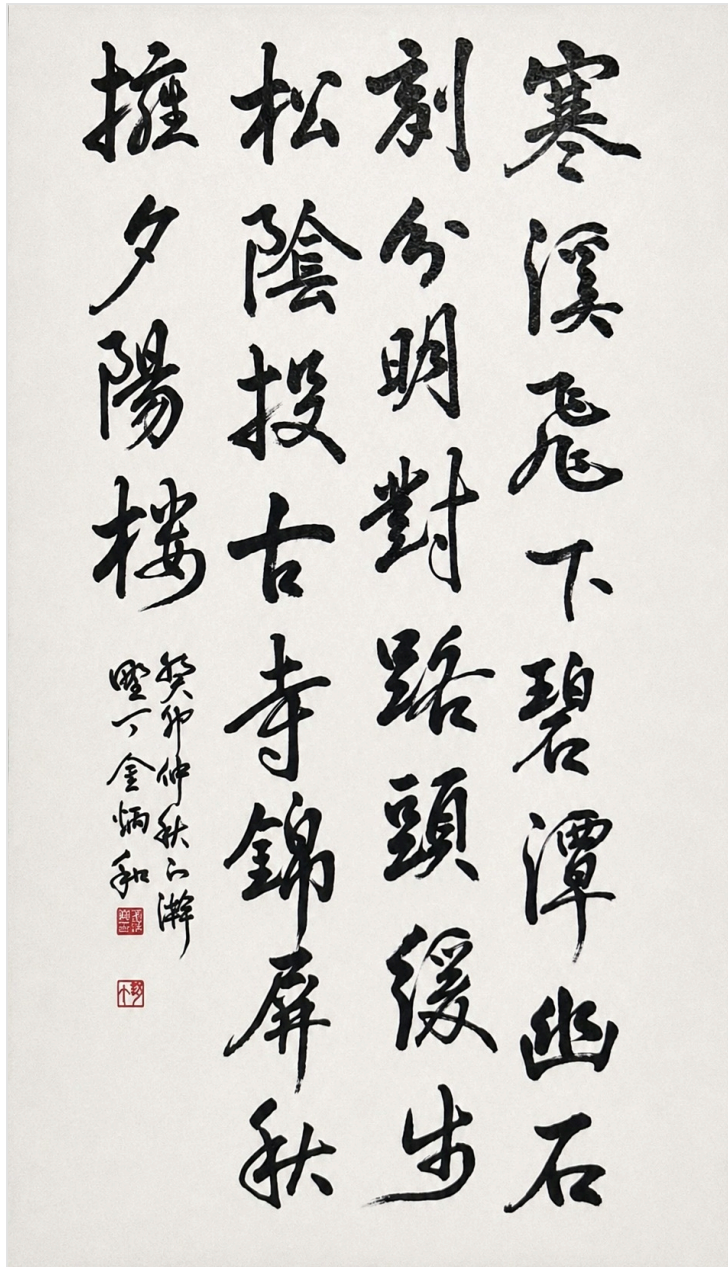
錦	緩	石	寒
屏	步	刻	溪
秋	松	分	飛
擁	陰	明	下
夕	投	對	碧
陽	古	路	潭
樓	寺	頭	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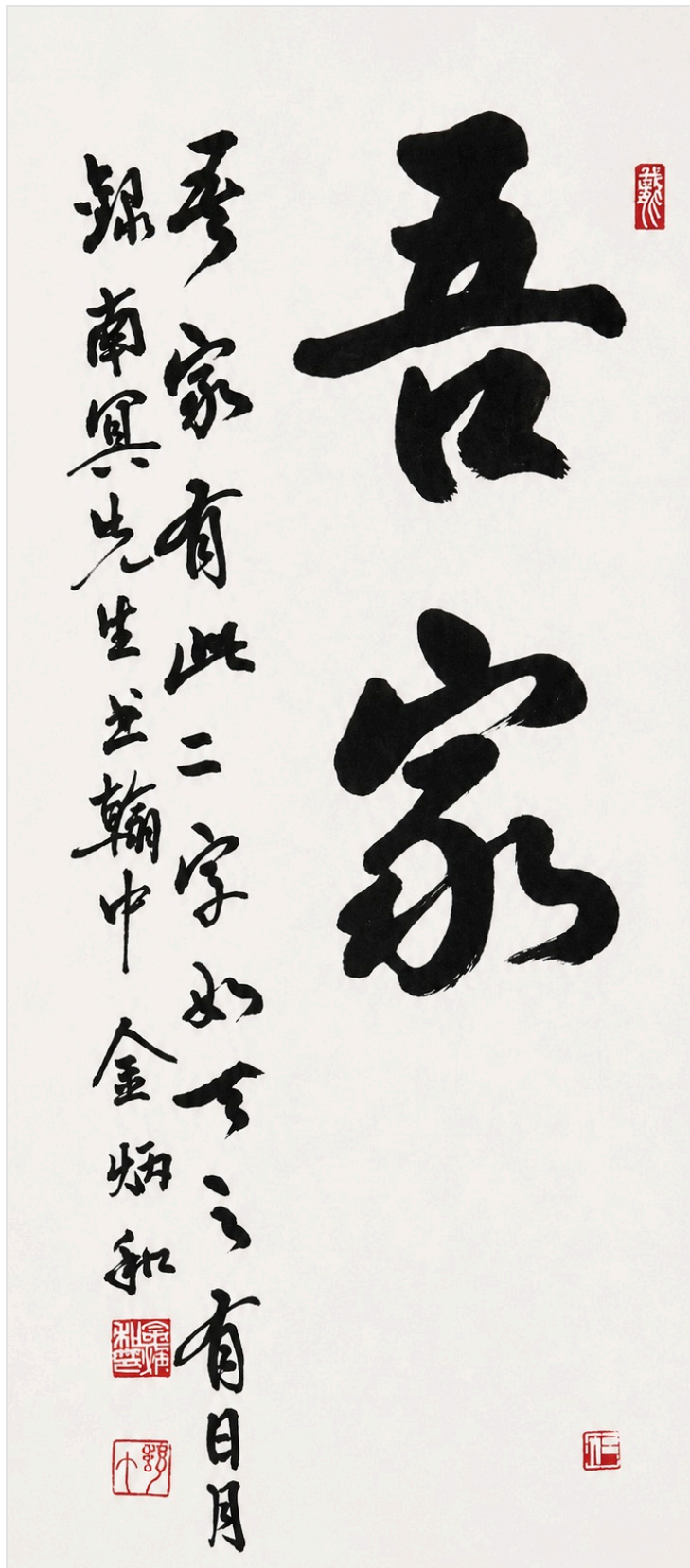
한계비하벽담유 석각분명대로두

완보송음투고사 금병추옹석양루

차가운 계곡물 흘러내린 푸른 못 그윽하고,
바위에 새긴 글씨 길가에 완연하네. 술 그늘
천천히 걸어 오래된 절에 이르니, 가을날
비단 병풍 해질녘 누각을 감싸네.

계묘년 중추에 쓴 행서. 쌍계사 석문을
노래한 한시.





도 07

오가 吾家

서예 · 2023

남명조식선생 어록서예전 (2023)

화 제 書題

吾家

오가

우리 집에 이 두 글자가 있는 것은 마치

하늘에 해와 달이 있는 것과 같다.

남명 선생 시한(詩翰) 중 두 글자를 대자로

쓴 작품.

도 08

구봉선생시 龜峯先生詩

서예 · 2022

제4회 단봉서우회전 (2022)

화 계 畫題

風	道	曉	客
作	平	天	夢
飛	如	殘	頻
塵	砥	月	驚
雨	愁	影	聽
作	辛	高	早
泥	苦	低	鷄

객몽빈경청조계 효천잔월영고저

도평여지수신고 풍작비진우작니

나그네 꿈 닭 울음소리에 자주 놀라, 새벽
하늘 지는 달 그림자 높고 낮네. 평탄한
길인데도 고생될까 걱정인데, 바람에 먼지
날고 비 오면 진창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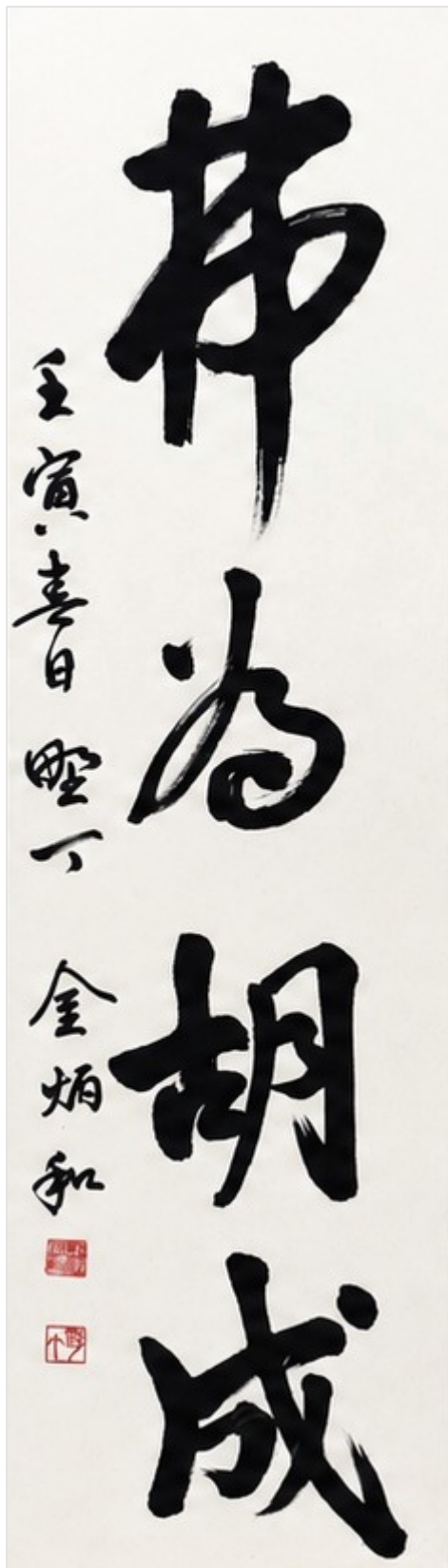
구봉 송익필의 시 「수기우정(睡起郵亭)」

을 행초서로 쓰다. 임인년에.

客夢頻驚聽早鷄
殘月影高低道平如砥
辛苦風作飛塵雨作泥

錄龜峯先生詩 壬寅孟春上澣 金炳和





도 09

불위호성 不爲胡成

서예 · 2022

화 제 書 題

不
爲
胡
成

불위호성

행하지 않고 어찌 이루랴

임인년(壬寅) 봄에 쓴 행서.

도 10

남명선생시 南冥先生詩

서예 · 2021

제4회 단봉서우회전 (2022)

화 계 畫題

意	歸	尖	雨
態	雲	峰	洗
自	低	畫	山
閑	薄	裏	嵐
閑	暮	看	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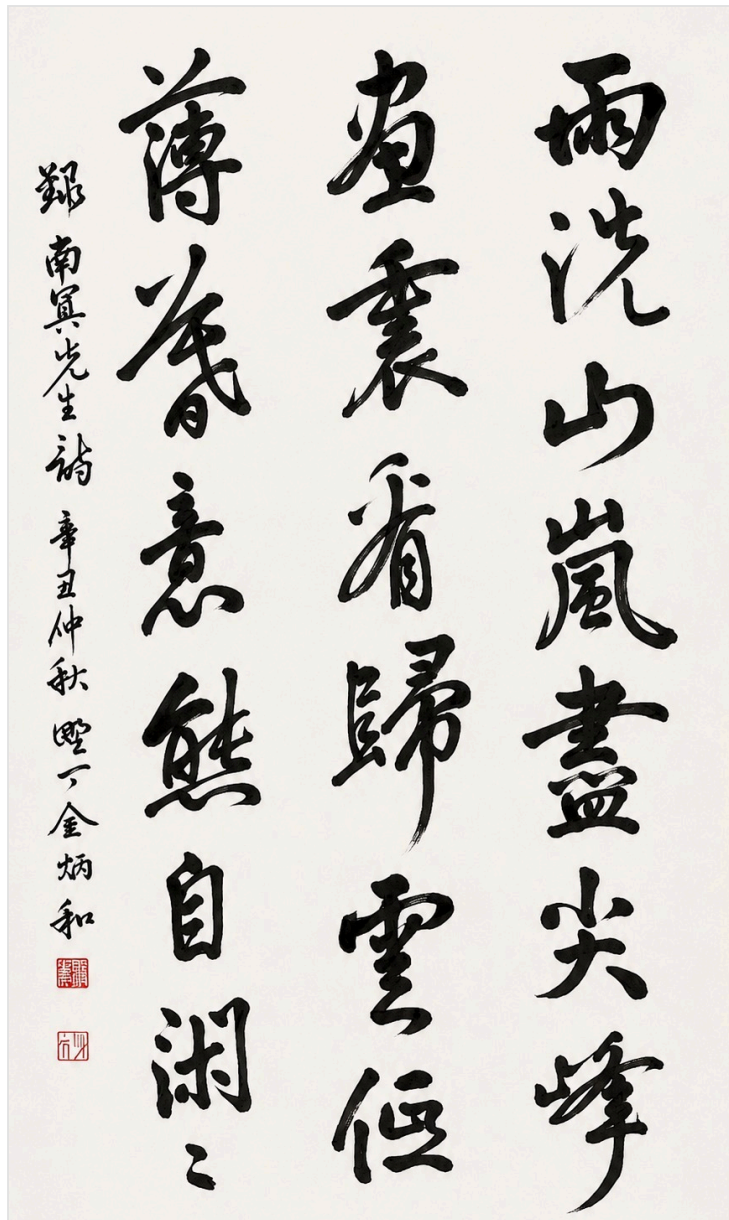
우세산람진 침봉화리간 귀운저막모

의태자한한

비가 산 아지랑이 싹 씻어가니 뽕족한
산봉우리 그림에서 본 듯, 저물녘 돌아가는
구름 낮게 깔리니 그 정취와 모습 절로
한가롭다.

남명 조식 선생의 시를 행서로 쓴 작품.

신축년 중추에 쓰다.





도 11

묵매 墨梅

문인화 · 2026

제15회 찾아가는 미술관 회원전 (2026)

화 제 畫題

님 그리워

곶게 피었나

수묵으로 친 매화.



도 12

홍매 紅梅

문인화 · 2025

제26회 대한민국문인화대전 (2025)

화 제 畫題

찬서리 찬바람 속에

님 그리워

이렇게 곱게 피었나

굵은 등치를 타고 오른 홍매. 이천이십오년
따스한 봄날에 치다.



도 13

홍매화 紅梅花

문인화 · 2025

제25회 합천미협전 (2025)

을사년에 그린 홍매. 늙은 등치에서 뻗어 나온 가지에 붉은 꽃이 가득하다.



배어난 가는 잎새 굳은 듯 보드랍고
 자줏빛 굵은 대공 하얀한 꽃이 벌고
 이슬은 구슬이 되어 마디마디 달렸다
 괴석 곁에 친 수목 난초. 가람 이병기의
 시조 「난초」 중에서.

도 14

묵란 墨蘭

문인화 · 2026

제42회 무등미술대전 (2026)

화 제 書題

배어난 가는 잎새 굳은 듯 보드랍고
 자줏빛 굵은 대공 하얀한 꽃이 벌고
 이슬은 구슬이 되어 마디마디 달렸다
 괴석 곁에 친 수목 난초. 가람 이병기의
 시조 「난초」 중에서.



도 15

묵란 墨蘭

문인화 · 2025

제30회 남도 서예·문인화 대전 (2025)

화 제 書題

영롱한 이슬 그 한 모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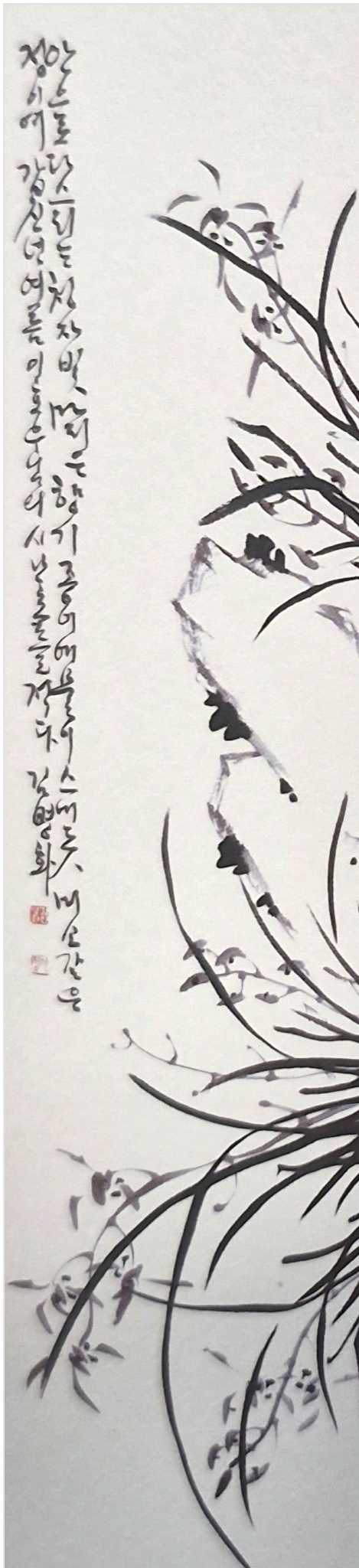
온 몸이 젖고 젖어

학이 춤을 추듯

피어난 하얀 꽃

다시 피어 오르는 천년의 향기

이계윤 님의 「난초」 중에서. 을사년 봄에
치다.



도 16

목란 墨蘭

문인화 · 2024

제25회 대한민국문인화대전 (2024) ·
제28회 합천문인화회원전 (2025)

화제 畫題

안으로 다스리는

청자빛 맑은 향기

종이에 물이 스미듯

미소 같은 정이여.

이호우 님의 시 낭송을 적다. 갑진년 여름.



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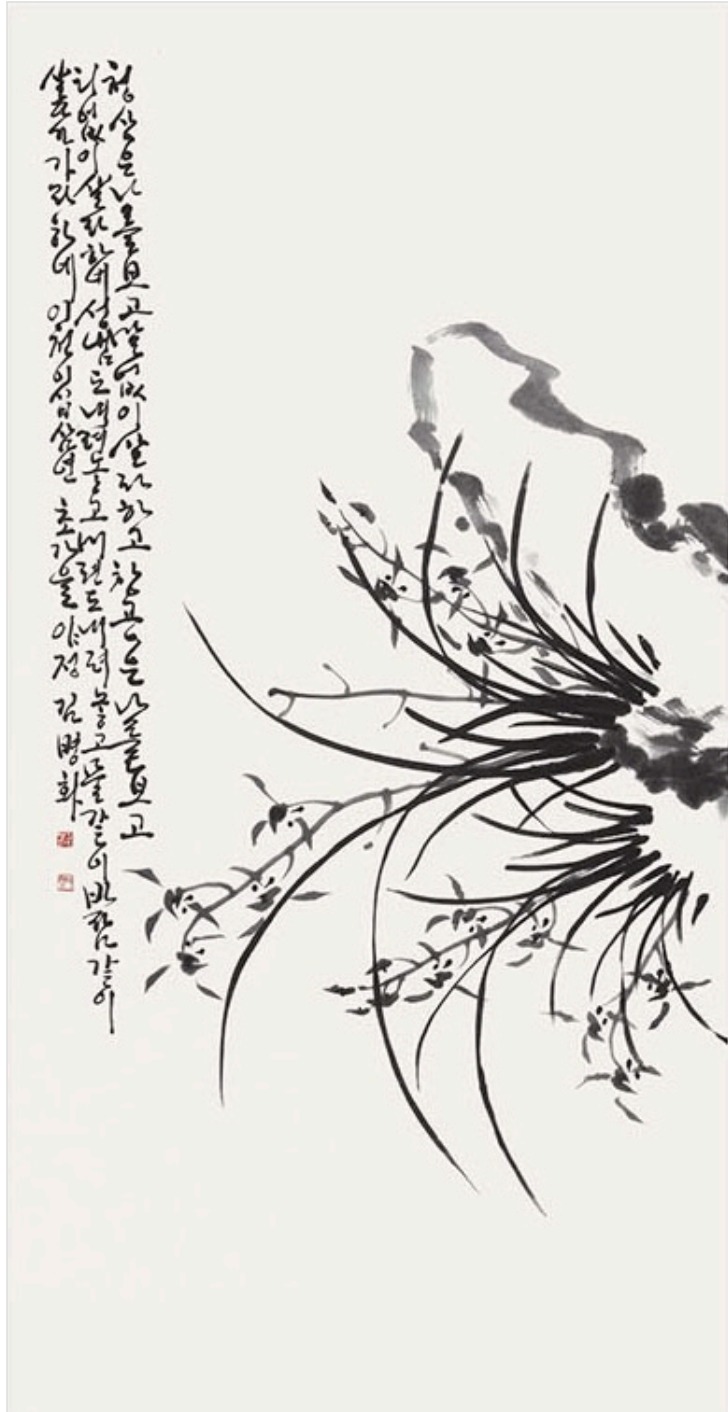
목란 墨蘭

문인화 · 2024

화제 畫題

내 맘에 난향 가득히

한글 화제를 곁들인 수묵 난초.



도 18

묵란 墨蘭

문인화 · 2023

제24회 대한민국문인화대전 (2023)

화 제 書題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바위 곁에 핀 난. 나옹선사의 「청산가」
중에서. 이천이십삼년 초가을.



도 19

목란 墨蘭

문인화 · 2022

제23회 대한민국문인화대전 (2022) ·
제26회 합천문인화회원전 (2023)

화 제 書 題

별 나빈 알리 없는 깊은 산골을 가려
안으로 다스리는 청자빛 맑은 향기
종이에 물이 스미듯 미소 같은 정이여
바위에서 쏟아져 내리는 현애란. 이호우
님의 시 「난초」를 적다.
이천이십이년 여름날.



도 20

국화 菊花

문인화 · 2025

화제 畫題

모진 비바람 맞으며
온몸으로 참고 견딘
시간 아깝지 않게
아름다운 꽃으로
너는 피어난다

한글 화제를 곁들인 수묵 국화.



도 21

국화 菊花

문인화 · 2024

제28회 합천문인화회원전 (2025)

화 제 書 題

그리움을 간직한 사람들 수만큼
꽃을 피운다는 국화꽃 이야기를
듣고 난 뒤 가을이 되면
국화가 왜 많이 피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한글 화제를 곁들인 수묵 국화.
이천이십사년 초가을에 치다.



도 22

황국 黃菊

문인화 · 2021

제5회 팔만대장경전국예술대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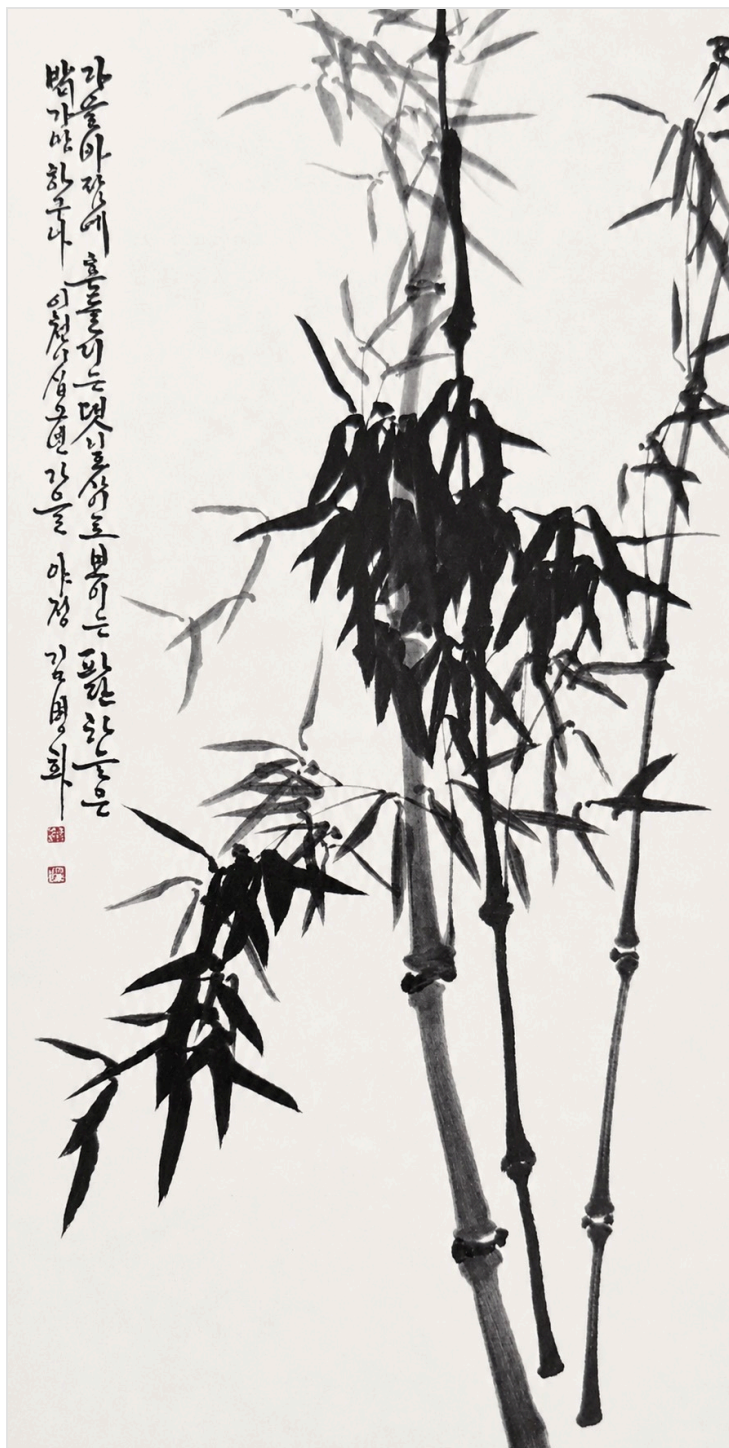
화 제 畫題

마음이 맑고 향기로운 사람이라야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나온다

한글 화제를 곁들인 수묵 황국(黃菊).



도 23

묵죽 墨竹

문인화 · 2025

제48회 경상남도미술대전 (2025)

화 제 書 題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댓잎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은 밝기만 하구나

수묵으로 친 대나무.



도 24

묵죽 墨竹

문인화 · 2025

제25회 합천미협전 (2025)

수묵으로 친 대나무.



도 25

선면 묵란 扇面 墨蘭

문인화 · 2025

2025 청풍전 — 바람의 축제 (갤러리 인사1010)

화 제 畫題

그윽한 향기

부채(선면)에 친 묵란.



도 26

선면 묵국 扇面 墨菊

문인화 · 2024

2024 청풍전 — 바람의 축제 (서울 인사동 조형갤러리)

화 제 書題

시원한 바람따라

찾아온 국화향기

부채(선면)에 친 묵국.

작가 약력

활동 및 경력

대한민국문인화대전 특선(제23·26회)·입선(제24·25회)

남도 서예·문인화 대전 우수상 (제30회)

경상남도미술대전 특선·입선 다수

문자예술대전 공모초대작가

울산전국서예문인화대전 우수상 (제20회)

팔만대장경전국예술대전 특선·입선

남명선생어록서예전 참여

한국미술협회 합천지부 회원

합천문인화회 · 연목회 · 단봉서우회 회원

전) 황강신문 발행 및 편집인

주요 전시

2026 제26회 합천미협전 (합천군문화예술회관)

2026 제15회 찾아가는 미술관 회원전 (합천군 야로면복지회관)

2025 제25회 합천미협전 (합천군문화예술회관)

2025 제28회 합천문인화회원전 (합천군문화예술회관)

2025 제31회 연목회·제5회 단봉서우회 회원전 (합천군문화예술회관)

2025 文字文明展 立象盡意 공모초대작가전 (창원 성산아트홀 전관)

2025 청풍전 — 바람의 축제 (서울 갤러리 인사1010)

2025 경남미술협회 회원전 아트엑스포 (창원 3·15아트홀)

2024 청풍전 — 바람의 축제 (서울 인사동 조형갤러리)

2024 제13회 찾아가는 미술관 (합천군 용주면 복지회관)

2023 제26회 합천문인화회원전 (합천일해공원)

2023 남명조식선생 어록서예전 (합천 용암서원)

2022 제4회 단봉서우회전 (합천)

야정 김병화 도록

서예 · 문인화



작가 야정 김병화

발행 2026

